

유아기 주 양육자의 양육행위 측정도구 개발

박선정¹ · 강경아²

¹여주대학교 간호학과, ²삼육대학교 간호학과

Development of a Measurement Instrument for Parenting Behavior of Primary Caregivers in Early Childhood

Park, Sun-Jung¹ · Kang, Kyung-Ah²

¹Department of Nursing, Yeosu Institute of Technology, Yeosu

²Department of Nursing, Sahmyook University, Seoul,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n instrument to measure the parenting behavior of primary caregivers of children in early childhood. **Methods:** An instrument was developed according to Devellis's instrument development process.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who completed the main survey were 370 mothers and grandmothers. The survey was conducted from June 1 to July 30, 2014, and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item analysis, half-split reliability and Cronbach's α coefficient, exploratory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onvergent validity. **Results:** The factor structure of the instrument showed the cumulative variance as 55.7% in the factor analysis. As a result of 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 four-factor structure was found to be appropriate, and the construct validity and convergent validity of the instrument were thereby confirmed. The finalized parenting behavior instrument consisted of 26 items and four independent factors: affectionate, laissez-faire, educational and impulsive. A five-point Likert scale was employed, and a higher score in a particular factor showed that most of the behaviors belonged to the factor. **Conclusion:** The instrument developed in this study was found to be reliable and valid, and can be used to develop parent-child relationship building.

Key words: Early childhood, Caregivers, Parenting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아동기는 처음으로 외부세계에 대한 지식을 얻고 사회화의 기초를 형성하며 여러 가지 습관을 획득하는 시기이다. 아동에게 있어 부모

는 최초로 맺는 인간관계이며, 부모가 제공하는 환경은 아동의 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1].

부모의 양육행위란 부모 또는 주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태도 및 행동으로 이러한 태도 및 행동에는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신념, 가치 등이 반영된다[2]. 양육행위는 그 시대 및 사회가 지향하는 아동에 대한 개념을 기초로 형성되

주요어: 유아기, 주 양육자, 양육

*이 논문은 제1저자 박선정의 박사학위논문의 일부를 발췌한 것임.

*This article is based on a part of the first author's doctoral thesis from Sahmyook University.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Kang, Kyung-Ah

Department of Nursing, Sahmyook University, 815 Hwarang-ro, Nowon-gu, Seoul 01795, Korea

Tel: +82-2-3399-1585 Fax: +82-2-3399-1594 E-mail: kangka@syu.ac.kr

Received: February 9, 2015 Revised: February 25, 2015 Accepted: May 6, 2015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Derivs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d/4.0>) If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and retained without any modification or reproduction, it can be used and re-distributed in any format and medium.

로 시대의 변천에 따라 변화하는 속성이 있다[3]. 즉, 양육행위는 부모 자신이 성장해 오면서 가졌던 과거의 경험에 따라 자녀 양육에 대한 가치관에 차이를 보일 수도 있고, 사회의 문화적 배경이나 그 가정이 속해 있는 사회 계층[4] 및 아동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5]. 또한, 양육행위는 아동의 성격, 대인관계, 학업성취, 자기 존중감, 사회성, 행동특성, 성역할 등 다양한 측면에서 아동의 성장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6].

유아기는 신체 운동발달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언어능력이 발달하며 사고능력이 확장되고 기본적인 학습능력이 길러지는 시기이다[7]. 또한 자기통제나 조절이 가능하게 되며, 사회적 경험이 확대되고 기초적인 사회화가 이루어지므로 주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양육행위는 유아기 자녀의 신체, 언어, 인지, 사회, 정서 등 전반적 발달의 과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이후의 성장발달에 중요하다[8]. 또한 아동 스스로 자기 신체를 통제할 수 있게 되어 자신이 원하는 활동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자율감이 발달하는 시기로서 돌봄 제공자의 양육행위에 의해 매우 민감한 영향을 받는 시기이다[9].

어느 사회문화적 맥락에서나 주 양육자의 양육행위는 자녀의 발달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10]. 서구사회의 양육에 대한 개념이 아시아권의 양육에서 나타나는 개념과 일치하지 않는 점이 확인되었듯이[11], 동일한 양육행위라도 개인이 속한 사회나 문화에 따라 자녀에게 다른 의미로 지각될 수 있으며, 자녀의 발달에 있어서도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다[12]. 따라서, 주 양육자의 양육행위와 자녀의 발달특성과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할 때 개인이 속한 사회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양육행위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양육행위 척도들은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목표로 개발된 국외의 양육행위 도구들의 개념적 기틀과 요인을 기초로 수정·보완된 양육행위 척도를 개발한 것으로서 [6,13-18], 양육자의 양육행위 유형을 파악하여 그에 맞는 양육지도를 수행하기 위한 측정 자료로 사용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건강한 유아의 성장발달을 증진하기 위해서 주 양육자의 부정적인 양육행위는 개선하고 긍정적인 양육행위는 강화할 수 있는 간호중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양육문화에 맞게 개념적 타당성이 정립되고, 최근 변화된 양육행위의 경향을 파악하는 도구가 개발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국내외에서 개발된 양육행위 측정도구를 살펴보면,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를 대상으로 한 연구[16,18]와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었다[14,19]. 그러나 오늘날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로 인해 조모와 외조모가 아동의 양육을 위해 밀접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시대적 변화와 취업한 기혼여성들이 자녀양육을 조모와 외조모의 지원에 의지하고 있으므로[6], 이를 반

영하여 양육행위의 주체를 주 양육자로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 위에서 제시한 양육행위 측정도구들은 주로 학령전기나 학령 후기[6,13-18]를 대상으로 개발되어, 유아기를 대상으로 한 양육행위 측정도구 개발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서, 본 연구는 유아를 양육하는 주 양육자의 양육행위 경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도구를 개발함으로써, 자녀의 양육을 보다 합리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유아를 돌보는 주 양육자의 양육행위 경향을 파악하기 위한 양육행위 측정도구를 개발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기 주 양육자의 양육행위에 대한 개념적 기틀을 구성한다.

둘째, 유아기 주 양육자의 양육행위 측정도구를 개발한다.

셋째, 유아기 주 양육자의 양육행위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한다.

3. 용어 정의

1) 주 양육자

주 양육자란 하루 8시간 이상 아동을 돌보는 사람을 의미하며[6], 본 연구에서 주 양육자란 가정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아동과 함께 하며 아동을 돌보는 어머니와 조모, 외조모를 의미한다.

2) 양육행위

부모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외현적 내현적 행동으로, 자녀의 성장 발달을 위해 기르고 가르치는 양태 또는 행동에 대한 경향성과 반응 양식을 의미한다[1]. 본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개발된 애정, 방임, 교육, 충동 4개 차원으로 구성된 도구로 측정한 값을 의미한다. 유아기 주 양육자의 양육행위 측정도구의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차원의 양육행위의 경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DeVellis [20]이 제시한 도구개발 절차에 근거하여 유아

기 주 양육자의 양육행위의 경향을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하고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는 방법론적 연구(methodological research)이다.

2. 개발 단계

1) 개념적 기틀 및 기초문항 작성

본 도구개발 진행과정은 DeVellis [20]의 도구 개발 절차에 근거하였다. 첫째, 관련 국내외 문헌고찰을 통하여 측정하고자 하는 양육행위에 대한 정의와 측정대상을 유아기 주 양육자로 명확히 구체화하였다. 둘째, 기존의 국내외 양육과 양육행위와 관련된 다양한 척도[6,13-18] 및 본 연구자의 사전 연구[5,21,22]를 참조하여 문항풀(pool)을 구성하였다. 특히, 본 연구를 위한 사전 연구로서 최근 한국 영유아기 부모를 대상으로 그들의 양육행위의 유형을 Q방법론[21]과 내용분석[5]을 통해 분석한 결과, 양육행위는 긍정적 강화영역과 부정적 강화영역이 있음이 파악되어, 주 양육자의 양육행위 유형별로 차별화된 아동 양육프로그램이 제공될 필요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를 토대로 최초의 문항풀을 분류한 결과, 애정적, 민주적, 과보호적, 통제적, 방임적 다섯 요인의 총 26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와 더불어 50명의 유아기 어머니를 대상으로 반구조적인 면담을 실시하였다. 이때 사용된 질문 내용은 '양육행위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시 하는 양육행위는 무엇일까요?'이었으며 면담 후 내용을 정리하였다. 문헌고찰과 심층면담을 통해 도출한 항목을 나열하여 중복된 문항 제거와 유사한 내용으로 묶어 분류한 결과, 애정적, 민주적, 과보호적, 통제적, 방임적 5개 요인과 150개 항목으로 정리되었다. 셋째, 측정척도와 측정결과 해석의 의미를 구체화하였다. 본 도구는 Likert의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대체로 그렇다' 4점, '항상 그렇다' 5점으로 점수를 합하여 총점을 내는 총화평정 척도이다. 측정의 목적은 양육행위 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하위영역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하위영역의 양육행위 경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2) 기초문항에 대한 내용타당도 조사 및 예비도구 개발

내용타당도는 3단계를 거쳐 이루어졌으며, 검증을 위해 아동병동 간호사 5인, 소아과 전문의 5인, 아동 간호학 교수 5인, 어린이집 교사 5인, 유아기 주 양육자 10인을 포함하여 총 30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에게 내용타당도 검정을 받았다.

각 항목별로 판정집단 간의 합의도를 보기 위해 각 항목별로 3~5점을 선택한 수를 백분율로 산출하여 내용타당도 점수(Content Validity Index [CVI])를 산정하여 90% 이상의 합의율을 보인 항목만을 선정하였고, 또한 판정집단의 의견을 수렴하여 문항을 수정·보완하였다.

일차 내용타당도 검정은 영유아기 양육행위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아동 간호학 교수 3인과 아동 병동 수간호사 2인, 어린이집 교사 2인을 소그룹 판정 집단으로 선정 하였다. 선정되어진 150개 예비문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문항의 적절성과 명확성에 대한 토론을 통해, 각 문항을 수정·보완하였다. 토론 내용은 각 문항의 질문이 유아기 주 양육자의 양육행위를 반영하는 적절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중복되지 않았는지, 용어의 사용이 적절했는지, 애매한 표현은 없는지, 어법은 정확한지 그리고 개념적 기틀의 하부 영역에 부합되는 문항인지, 주 양육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인지에 대해 이루어졌다. 이를 통하여 5개 요인의 총 76개 문항이 선정되었다.

이차 내용타당도 검정을 위해 총 76개 예비문항에 대한 어휘의 정확성과 표현의 적절성을 판정하기 위해 국문학 교수 1인에게 자문을 받았으며, 고졸 이하의 유아기 주 양육자 20명에게 문장의 이해도와 난이도를 질문한 결과, 12개 문항이 삭제되었다.

삼차 내용타당도 검정을 위해 4개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유아기 주 양육자 80명을 대상으로 어휘의 난이도, 응답 용이성, 수정이 필요한 부분과 설문지를 완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주 양육자가 쉽게 각 질문 항목의 내용을 이해하였고, 의미가 모호한 부분이 없다고 하였으며, 예비문항을 완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최소 10분에서 최대 20분 정도 소요되었다. 내용 타당도 검정을 통해 구성된 예비문항은 애정적 행위 15문항, 민주적 행위 12문항, 과보호적 행위 13문항, 통제적 행위 12문항, 방임적 행위 12문항으로 총 64개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3) 사전 조사

DeVellis [20]의 다섯째 절차에 따라 본 조사를 진행하기 전에 도구에 사용된 단어의 난이도와 문장의 이해도 및 도구의 구성이 적절한지 파악하고 응답에 어려움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64문항으로 구성된 예비도구의 사전 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상자는 4개 도시의 사회 계층이 상, 중, 하로 골고루 선정 되도록 주거지역을 표집하여 각 어린이집, 문화센터, 소아과에 내원한 어머니, 조모, 외조모를 대상으로 총 165명을 대상으로 사전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의 응답이 무성의한 15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최종 150명의 자료가 사전 조사에 사용되었다.

Cronbach's α 계수와 반분 신뢰도 산출을 통해 예비 조사 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였고 구성 타당도 검증을 위해 문항분석,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문항분석은 각 문항 전체 상관계수와 문항 제거시 Cronbach's α 계수를 구하였으며, 선정된 64문항 중 23문항이 제거되었다. 문항분석에서 선정된 41개 문항 중에서, 내적일관성 정도 및 반분 신뢰도 관계 수치가 낮은 제4요인의 2개 문항은 제외되었고, 요인분석 결과, 개념적 기틀에 부합되지 않아 5문항을

제외하여 총 7개 문항 삭제 후 본 조사를 위해 최종 선정된 문항은 34개 문항이었다.

3. 평가단계: 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1) 연구 대상

본 조사를 위한 대상자 선정기준은 유아기 주 양육자(모, 조모, 외조모)로 일반적 질환이나 신체적 기형이 없는 자, 다문화가정 아닌 자,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였다. 대상자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 연구 참여에 대한 익명성 보장, 자발적인 연구 참여 동의와 거부, 중도포기 가능성, 발생 가능한 이익과 불이익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구두와 서면으로 설명하고 자발적인 동의서를 받았다. 설문지는 주 양육자가 직접 작성하게 하였으며, 최종 설문지의 총 370명이며 응답이 무성익한 19명의 자료를 제외한 최종 351명의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측정도구 검증을 위해 필요한 표본크기는 최소한 300명 또는 문항 수의 5배의 표본이 필요하다[23]는 것을 고려할 때 본 연구 대상자 수는 351명으로 이를 만족하였다.

2) 자료 수집

본 연구는 연구 대상자 보호를 위하여 연구 시작 전 ‘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자료를 수집하였다(IRB No. SYUIRB2014-101). 자료 수집 기간은 2014년 6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였으며, 자료 수집은 각 지역의 어린이집과 문화센터, 소아과 등의 기관에 공문을 통한 사전 허락을 받은 후 시행하였다. 사전 조사와 같이 어린이집, 문화센터, 소아과에 내원한 주 양육자(어머니, 조모, 외조모)를 대상으로 해당 기관장 또는 담당교사가 주 양육자에게 설문접촉 요청이 있는 후 본 연구자와 연구 보조원 2인이 대상자를 만나 설문 조사를 하였으며 조모나 외조모의 경우 설문지에 자기기입이 어려운 경우는 연구원이 직접 읽어주고 설문에 기입하게 하였다.

본 도구가 모든 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주 양육자에게 사용될 수 있도록 경제적 수준과 도시 수준을 고려하여 표출하였으며, 본 연구 대상자 351명 중에서 대도시 거주자는 110명(31.3%), 중도시 129명(36.8%), 소도시 112명(31.9%), 경제수준이 상 145명(41.3%), 중 110명(31.3%), 하 96명(27.4%)이었다.

3) 자료 분석 방법

개발된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을 위해 본 연구는 SPSS WIN 21.0과 AMO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은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백분율과 빈도,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으며, 문항분석에 필요한 상관관계는 피어슨 상

관관계를 사용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Varimax방법을 사용하였고, AMOS를 활용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체 척도와 요인별 신뢰도는 내적 일치도(Cronbach's α), 반분 신뢰도(Guttman Split)를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본 조사 대상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351)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or M \pm SD
Children's gender	Male	172 (49.0)
	Female	179 (51.0)
Children's age (month)		23.62 \pm 6.95
Children's health	Very good	164 (46.7)
	Good	147 (41.9)
	Moderate	40 (11.4)
Children's temperament	Good	110 (31.3)
	Moderate	176 (50.1)
	Fastidious	65 (18.5)
Children's relation	Mother	328 (93.4)
	Grand mother	5 (1.4)
	Maternal grandmother	18 (5.2)
Caregiver's age (yr)	≤ 25	14 (4.0)
	26~30	79 (22.5)
	31~35	130 (37.0)
	36~40	89 (25.4)
	≥ 41	39 (11.1)
Education	High school	51 (14.5)
	College	133 (37.9)
	University	125 (35.6)
	Master	42 (12.0)
Job	No	156 (44.4)
	Yes	195 (55.6)
Job type	Service job	50 (14.2)
	Office job	48 (13.7)
	Professional position	76 (21.7)
	Administrative position	21 (6.0)
Family type	Nuclear family	329 (93.7)
	Extended family	17 (4.8)
	Others	5 (1.4)
Monthly income (10,000 won)	≤ 200	25 (7.1)
	201~300	71 (20.2)
	301~400	110 (31.3)
	401~500	94 (26.8)
	≥ 501	51 (14.5)
Length of marriage (yr)	1~5	111 (31.6)
	6~10	153 (43.6)
	11~15	71 (20.2)
	≥ 16	16 (4.6)
Number of children (person)	1	147 (41.9)
	2	180 (51.3)
	≥ 3	24 (6.9)

자는 총 351명으로, 남아가 172명(49.0%), 여아가 179명(51.0%)으로 여아가 다소 많았으며, 아동의 평균 연령은 23.6 ± 6.9 개월이었다. 아동 건강상태는 매우 건강하다 164명(46.7%), 건강하다 147명(41.9%), 보통이다 40명(11.4%)으로 확인되었으며, 아동의 기질 상태에 대해서는 보통이다 176명(50.1%)으로 가장 많았고, 아동과의 관계에서는 어머니가 328명(93.4%)으로 가장 많았으며, 외조모가 18명(5.2%), 조모가 5명(1.4%) 순이었다. 양육자 연령은 31~35세는 130명(37.0%), 36~40세가 89명(25.4%), 26~30세가 79명(22.5%) 순으로 나타났다. 양육자의 학력으로는 전문대졸이 133명(37.9%)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양육자의 직업이 없는 경우가 156명(44.4%), 직업이 있는 경우 195명(55.6%)으로 나타났다. 직업 형태로는 전문직이 76명(21.7%)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비스직 50명(14.2%), 사무직 48명(13.7%), 관리직 21명(6.0%)으로 확인되었다. 가족형태에서는 핵가족이 329명(93.7%)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평균 수입은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인 110명(31.3%)으로 가장 많이 확인되었다. 결혼 년수는 6~10년이 153명(43.6%)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녀 수에서는 2명이 180명(51.3%)으로 가장 많았고, 1명인 경우가 147명(41.9%), 3명 이상이 24명(6.9%)으로 나타났다.

2. 타당도 검증

1) 문항분석

문항분석은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등을 검토하고, 문항-전체 상관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문항의 변별력을 확인하였다[24]. 문항분석을 통해 문항과 전체문항과의 상관관계수가 .30 이상이면서 .80 미만인 문항만을 선정하였다. 이는 문항분석 시 문항과 전체 문항과의 상관관계수가 .30 미만인 경우 해당문항은 각 척도 영역 내에서 기여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며 .80 이상인 경우는 중복된 문항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24]. 문항분석 결과, 문항과 전체문항과의 상관관계수가 .30 미만, .80 이상인 문항이 삭제되었다.

2) 구성타당도

(1) 탐색적 요인분석: 요인추출 및 요인회전

유아기 주 양육자 양육행위 측정도구의 구성타당도를 검정하기 위하여 34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에 적절한 자료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표본적절성 검정을 위한 표준 형상적절성(Kaiser-Meyer-Olkin [KMO]) 값을 추출하였으며 KMO 측정값은 .86이었다.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 p 는 .001 미만으로 나타나 문항의 상관관계수 행렬이 단위행렬이 아님이 검정되어 분석에 사용된 문항은 요인분석을 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24]. 요인추출의 방법은 요인 수와 정보손실을 최소화하고자 주성분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요인회전은 직교회전 방식 중 Varimax 회전을 이용하였다[24]. 주성분 요인 분석에서 적절한 요인을 추출하기 위한 기준으로 고유값 1.0 이상, 요인적재량 $\pm .5$ 이상, 스크리 도표 변화를 고려하여[25], 최종문항으로 선정된 34개 문항에 대해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최종 4개 요인으로 추출하였다.

Varimax 회전을 사용한 주성분 요인분석에서는, 8개 문항(양육행위 2, 3, 4, 5, 7, 21, 28, 34) 요인 적재량 .50이거나 음의요인 적재량을 보여 삭제하였고, 4개의 요인과 26개 문항이 선정되었다.

최종 선정된 26개 문항으로 다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KMO 측정치는 0.86이었으며, Bartlett의 Sphericity test 상 $\chi^2 = 4122.82$, $df = 325$, $p < .001$ 의 결과가 확인되어 요인분석의 적합성이 검정되었다. 그 결과, 4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이들 요인은 전체 변량의 55.7%를 설명해 주었다. 4개 요인에 적재된 모든 문항의 공통성은 .57~.87로 추출된 요인은 각 문항의 변량을 50.0% 이상 설명하였다.

(2) 탐색적 요인분석: 요인명명

제1요인의 문항에서는 ‘아이의 말에 경청해 준다’, ‘아이와 눈 맞춤을 자주 한다’ 등의 문항으로 관심있는 돌봄, 지지, 사랑과 수용의 감정에 반응한다는 의미로 애정적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총 10개 문항은 예비도구의 요인 명명과 일치되며, 고유값은 6.90이고, 26.5%를 설명하고 있었다. 제1요인에 해당되는 문항은 ‘애정적’으로 명명하였다. ‘애정’의 사전적 의미는 ‘사랑하는 마음’[26]으로 본 도구 요인의 문항을 적절히 설명하고 있다고 본다.

제2요인의 문항에서 ‘아이에 대한 관심이 없다’, ‘아이를 위해서 해 줄 일을 자주 잊는다’ 등은 자녀에게 관여하지 않고 아동의 요구에 대해 둔감하게 반응한다는 의미로 방임적 요인으로 명명되었다. 총 7개 문항으로 예비도구의 요인 명명과 일치되며 고유값은 3.91이었고, 제2요인을 15.0% 설명하였다. 제2요인에 해당되는 문항은 ‘방임적’으로 명명하였다. ‘방임’의 사전적 의미는 ‘돌보거나 간섭하지 않고 제멋대로 내버려 둠’[26]을 의미하여 본 도구 요인의 문항을 적절히 설명하고 있다고 본다.

제3요인의 구성 문항은 ‘아이가 양보하도록 격려한다’, ‘아이가 질문을 하면 아는데까지는 자세히 설명해 준다’로 구성되어 예비도구의 민주적 차원으로 나타나며, 자녀에게 풍부한 환경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교육적 요인으로 명명되었다. 총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유값은 2.23로서, 8.6%를 설명하였다. 제3요인에 해당되는 문항은 ‘교육적’으로 명명하였다. ‘교육’의 사전적 의미는 ‘지식과 기술 따위를 가르치며 인격을 길러 줌’[26]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본 도구 문항의 의미를 적합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

제4요인의 문항으로는 ‘화날 때는 아이를 때린다’, ‘기분 내키는 대로 아이를 대한다’ 등은 자녀에게 늘 엄격하게 통제적으로 지도한다는 의미와 관계가 있다. 총 4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예비도구의 통제적요인 명명과 일치되며, 고유값은 1.45로서, 5.6%를 설명하고 있었다. 제4요인에 해당되는 문항은 ‘충동’이라고 명명하였다. ‘충동적’의 사전적 의미는 ‘순간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고 싶은 욕구를 느끼게 하는 마음속의 자극’ [26]을 뜻하여 본 도구 4개 문항의 의미를 적합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

요인분석 결과, 제1요인의 분산의 양과 설명변량이 매우 높게 나타나 유아기 주 양육자의 양육행위에 있어 제1요인인 애정적 차원이 유아기 주 양육자의 양육행위 측정도구에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Table 2).

(3) 확인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토대로 개발된 척도에서 나타난 구성요소를 확인하기 위해, AMOS를 이용하여 26개 문항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27].

본 연구에서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χ^2 값은 1032.52이고, 적합도 지수를 보면 GFI (Goodness of Fit Index), NFI (Normed Fit Index), CFI (Comparative Fit Index), IFI (Incremental Fit Index)는 수용기준인 0.8 이상으로 나타났으며[27], RMSEA도 .08로 나타났다. 또한 χ^2 값이 1032.52 (df=293), Q값이 3.52로 확인되었다 (Table 3).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한 후 양육행동 척도의 모수 추정치를 검토한 결과, 제1요인을 구성하는 문항들의 표준화 회귀계수는 0.51~0.75로, 모두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제2요인을 구성하는 문항들의 표준화 회귀계수는 0.51~0.82로, 모두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제3요인을 구성하는 문항들의 표준화 회귀계수는 0.50~0.80으로,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제4요인을 구성하는 문항들의 표준화 회귀계수는 0.57~0.81으로,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준화된 회귀계수(표준 적재치)가 .5 이하인 문항들은 모형의 적합도를 낮출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모두 .50 이상이므로 이 값이 .5 이상일 때 유의미한 것으로 해석[25]하는 기준을 만족시켰다(Figure 1).

Table 2. Factor Analysis

(N=351)

Item No.	Item contents	Factor loading			
		F 1	F 2	F 3	F 4
27	Listen closely to what the child says.	0.77	-0.06	0.06	-0.08
25	Respond with a positive attitude to the child's opinion.	0.74	-0.03	0.01	-0.10
22	Make eye contact with the child frequently.	0.73	0.03	-0.01	-0.10
23	Try to respect the child's opinion.	0.66	0.05	0.28	0.03
9	Help the child to feel that he or she is special.	0.66	-0.11	0.13	-0.03
15	Comfort the child when he or she is in trouble.	0.65	0.04	0.17	-0.04
18	Treat the child with care.	0.65	0.06	0.25	-0.01
6	Make physical contact with the child like hugging and caressing.	0.64	-0.09	0.09	-0.24
12	Make the child feel like what he or she did is special and proud.	0.61	-0.03	0.13	-0.11
1	Make frequent compliments to the child.	0.58	-0.20	0.01	0.06
26	Have no cares about children.	-0.11	0.79	0.01	0.20
11	Don't take the child to the hospital if he/she is bothersome.	0.08	0.71	-0.40	0.11
24	Frequently forget what you need to do for the child.	-0.12	0.69	-0.09	0.02
14	Don't care even if the child is dirty and doesn't wash himself or herself.	0.11	0.67	-0.38	0.10
17	Don't care even if the child stays out until late.	0.03	0.66	-0.15	-0.07
29	Let out your anger on the child.	-0.25	0.65	0.09	0.17
8	Don't ever listen to the child's needs.	0.07	0.57	-0.35	0.13
19	Encourage the child to share with others.	0.27	0.06	0.75	0.06
10	Answer the child's questions as earnestly as you can.	0.28	-0.19	0.67	-0.05
13	Encourage the child to have a healthy life style.	0.25	-0.43	0.62	-0.10
16	Teach the child to be well-mannered and polite.	0.34	-0.31	0.60	0.01
20	Come to the child's needs immediately.	0.02	-0.26	0.58	-0.20
30	Beat the child when angry.	-0.06	-0.00	-0.07	0.87
31	Treat the child as you want.	-0.07	0.43	0.06	0.75
32	Leave the child to do what he or she can do.	-0.22	-0.07	-0.19	0.74
34	You don't know what you will do to the child when he or she is in trouble.	-0.09	0.41	-0.02	0.71
Eigen value		6.90	3.91	2.23	1.45
Explained variance (%)		26.5	15.0	8.6	5.6
Accumulative variance (%)		26.5	41.6	50.1	55.7
Kaiser-Meyer-Olkin (KMO)		.86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chi^2 = 4122.82$, df=325, $p < .001$			

Table 3. Model Fit Statistics by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Model	χ^2	df	p	GFI	CFI	RMSEA	IFI	NFI
Reference			$\geq .05$	$\geq .70$	$\geq .70$.05~.08	$\geq .70$	$\geq .70$
Hypothetical	1032.52	293	$< .001$.82	.81	.08	.81	.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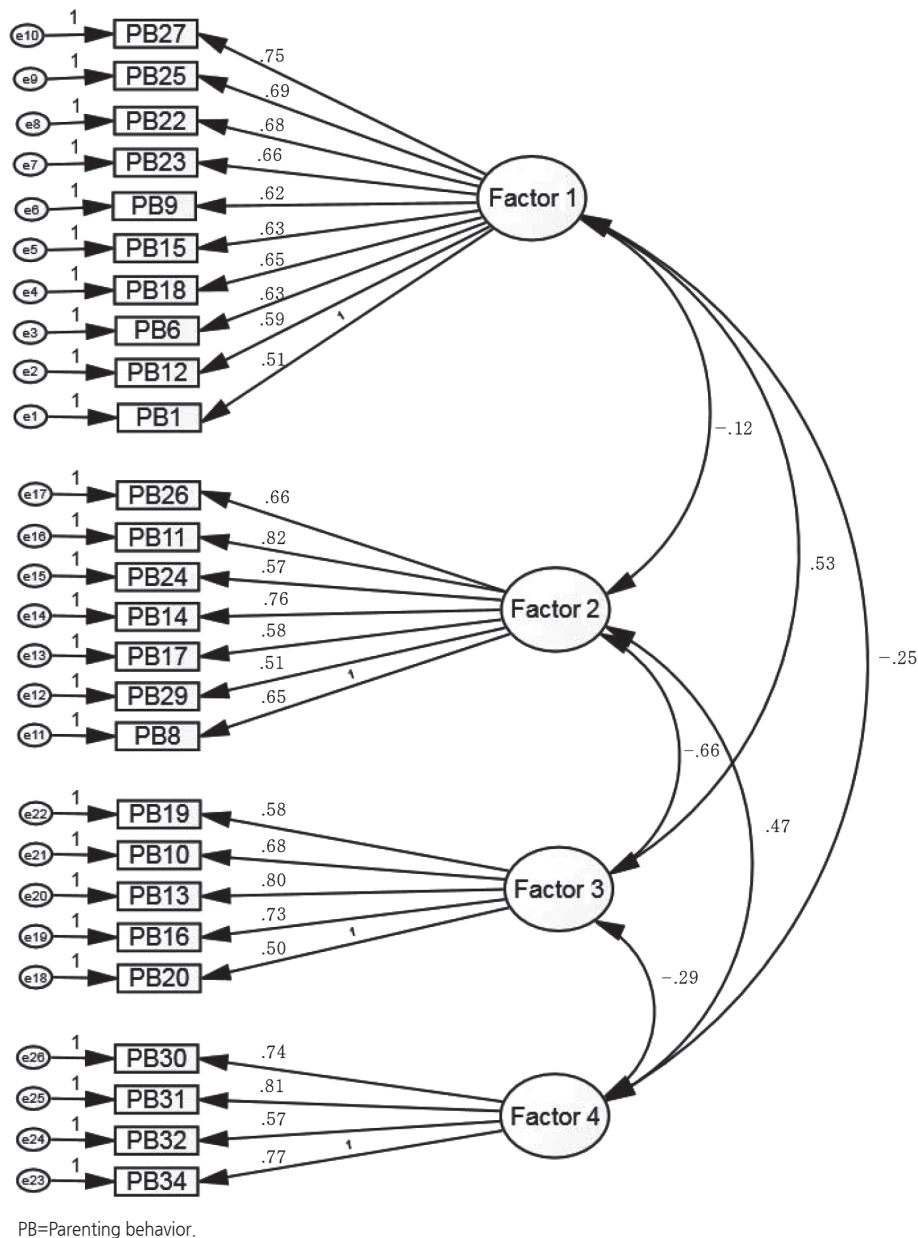


Figure 1.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3. 신뢰도 검정

유아기 주 양육자의 양육행위 척도의 신뢰도를 검정하기 위하여 26개 문항으로 구성된 전체척도와 각 요인별 내적 일치도 즉, Cronbach's α 와 반분 신뢰도 Guttman Split half를 산출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4).

요인별 내적 신뢰도는 제1요인의 경우 문항 수는 10문항으로 Cronbach's α 는 .87, Guttman 반분 신뢰도 계수는 .87로 나타났다. 제2요인의 경우 문항 수는 7문항으로 Cronbach's α 는 .84, Guttman 반분 신뢰도 계수는 .82로 나타났다. 제3요인의 경우 문항

Table 4. Factor Reliability (N= 351)

Factors	Reliability	
	Cronbach's	Guttman
Affectionate	.87	.87
Laissez-faire	.84	.82
Educational	.80	.77
Impulsive	.82	.84

수는 5문항으로 Cronbach's α 는 .80, Guttman 반분 신뢰도 계수는 .77로 나타났다. 제4요인의 경우 문항 수는 4문항으로 Cronbach's α 는 .82, Guttman 반분 신뢰도 계수는 .84로 나타났다.

4. 최종 개발된 유아기 주 양육자 양육행위 척도

본 연구에서는 위에 기술한 바와 같이 요인구조 탐색, 확인, 신뢰도, 타당도 검증 과정을 거쳐 26개 문항으로 구성된 유아기 주 양육자의 양육행위 도구를 완성하였다. 최종도구는 '애정적' 요인(제1요인)에 관한 10문항, '방임적' 요인(제2요인)에 관한 7문항, '교육적' 요인(제3요인)에 관한 5문항, 그리고 '충동적' 요인(제4요인)에 관한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들 문항은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양육행위의 경향을 측정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양육행위를 반영시킨 점수를 산출하여 전체 척도와 요인별 평균치를 별도로 구분하여 전반적인 양육행위와 요인별 양육행위의 경향을 평가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구성된 유아기 주 양육자 양육행위 측정도구는 Table 2에 제시되었다.

논 의

논의의 구성은 본 연구에서 개발된 도구의 4개 하위요인이 기존 양육행위 측정도구와 달리 최근 한국 유아기 주 양육자의 양육행위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 차별화된 점과 본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 결과를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1950년대 이후부터 양육행위 척도개발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학령전기, 학령기, 청소년기를 대상으로 한 측정도구가 개발되었을 뿐 자율성 발달에 중요한 유아기 양육행위를 측정하는 도구는 개발되지 않았다. 또한 최근 부모 중심의 자녀 양육이 주 양육자로 변화하고 있는 한국의 현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때, 본 유아기 주 양육자의 양육행위 유형을 파악하기 위한 도구는 국내 유아 양육상황을 반영하고 있으며, 개별 양육자에게 보다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양육행위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본다.

본 도구는 4개 요인의 26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4개 요인은 긍정적 양육유형인 애정적, 교육적 요인과 부정적 양육유형인 방임적,

충동적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다른 측정도구와 달리 양 극단의 양육행위의 경향을 갖고 있는 점은 본 연구 결과에서 확인된 차별화된 점이었다.

학령기를 대상으로 한 Perris 등[19]의 연구에서는 애정, 거부, 과보호의 3가지 하위차원으로 구성되었으며 Oh와 Lee [15]의 연구에서는 애정지향, 자율지향, 성취지향, 합리지향의 4가지 하위 차원으로 구성되었고, Park과 Lee [14]는 애정, 적대, 통제, 과보호, 합리적 인지도, 적극적인 참여, 성취, 일관성 있는 규제의 8가지 하위차원, Jeong과 Shin [17]의 연구에서는 온정, 거부, 구조, 혼란, 자율성 지지, 강제로 구성되어진 6가지 하위 차원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Kim과 Kim [13]의 연구에서도 자율성 지지, 관여, 구조의 제공 3가지 하위차원, Rhee [6]의 연구는 온정, 논리적 설명, 개입, 강압, 방임 5가지 하위차원으로 이루어졌다. 청소년기를 대상으로 양육행위 측정도구를 개발한 Lim과 Chung [16]의 연구에서는 수신, 모범, 책임, 정성, 희생, 인내, 엄친, 존중, 관심 가르침, 관대, 믿음, 애정, 비난, 심리적 통제, 지나친 관여, 지나친 허용, 감독의 19가지 하위차원으로 이루어졌으며, Huh [18]의 연구에서는 감독, 합리적 설명, 비밀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 학대, 방치, 애정으로 8가지 하위차원으로 구성되어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상과 같이 기존에 개발된 학령기와 청소년기의 양육행위에 관련된 도구의 하위차원은 주로 긍정적 성향의 차원이 부정성 보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부모의 지나친 관심과 개입의 특성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한국 유아기 주 양육자의 특성은 학령기와 청소년기에 비해 과잉기대와 간섭보다는 애정적, 교육적인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 방임적, 충동적인 양육행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율성이 강하며, 제1의 반항기인 유아기의 독특한 양육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점이라고 생각되며 부정적인 양육행위가 발생하는 동기와 원인규명을 위한 추후 연구가 진행되므로 바람직한 유아기 양육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방안이 모색되어야겠다.

첫번째 요인인 '애정적' 요인은 본 연구에서 제1요인으로 Eigen value가 6.90으로 전체 변량에 대한 설명력이 26.5%였다. 애정은 관심 있는 돌봄, 지지, 사랑과 수용의 감정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애정적인 동시에 수용적이며 아동에 대해 이해해 주며,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친밀감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11]. 이는 Park과 Lee [14], Oh와 Lee [15], Kaplan과 Saccuzzo [28]의 연구 결과의 애정적 측면의 중요성에 대한 도구 구성이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자녀에 대한 애정적인 태도의 결과, 애정적인 분위기에서 자란 유아는 부모와 신뢰감이 형성되어 나중에 성장했을 때 남을 사랑하고 관용하는 능력이 있으며,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쉽게 표현하여 개방적이고 솔직하다는 것으로 나타나[17], 부모는 언제나 양육행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허용적이고 긍정적이며 신뢰적인 가정환경을 조

성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주 양육자에게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부모의 양육행위가 애정적, 수용적으로 자녀에게 온정적, 헌신적이며 같이 활동에 참여해주고 칭찬을 아끼지 않는 경향을 필수로 자녀는 집단에서 지도적이고 협동적이면서도 이론적, 사색적인 인성을 발달시킨다고 하였다[29]. 2010년 이후 발표된 양육행위 Q방법론[21], 영유아기 양육행위 내용분석 결과에서도 [5] 애정적인 양육행위가 주를 이루고 있었고, 본 연구에서도 애정적인 양육행위의 경향은 과거 개발된 양육행위 도구에서의 요인과 같이 최근 한국 유아기 주 양육자의 양육행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는 특성임이 확인되었다.

두번째 요인인 ‘방임적’ 요인은 Eigen value가 3.91로 전체 변량의 15.0%를 설명하였다. 자녀 양육 시 방임은 자녀의 발달에 무관심하고 신체적, 정서적인 측면에서 필요한 욕구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돌보거나 간섭하지 않고 제멋대로 내버려 두는 비양육적인 측면을 의미한다[7].

본 연구에서는 방임적 양육행위가 제2요인으로 중요한 차원임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최근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방임이나 무관심과 관련된 결과에 포함되어진 문항과 본 연구 결과가 일치되어[29] 최근 국내 주 양육자의 양육행위에서 관찰되는 우세한 경향임이 파악되었다. 이 결과는 기존의 양육행위를 파악하는 도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 확인된 차별화된 결과이다. 유아가 원하는 대로 해주거나 내버려 두는 등 양육에 관한 적절한 대처방법을 모르는 주 양육자의 경우 유아의 양육을 위해 애정적인 반응을 하기보다는 어려운 상황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며 별 다른 노력을 시도하지 않고 자녀를 방임하는 성향이 최근 주 양육자들에게 나타나고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

아동 양육 시 부정적인 측면에 포함되어지는 방임적 양육행위로 자란 아동은 공격적 성향을 많이 나타내며 분노를 쉽게 표출하며 타인에 대한 적대감이 강하고 일탈행동을 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6]. 부모는 자녀가 올바른 성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적합한 양육행위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며, 추후에는 방임적인 양육행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녀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법, 자녀와 대화하는 법, 자녀들의 이야기를 경청하여 따뜻한 관심과 배려 그리고 사랑으로 자녀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양육행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방임적 양육에 대하여 인식하는 주 양육자들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교육이 아니라, 피드백을 동반한 방법과 양육행위에 대한 상황과 올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양육행위를 길러주며 적절한 양육행위의 의미에 대해 구체적 교육이 필요함을 제시할 수 있다[11].

세번째 ‘교육적’ 요인의 Eigen value는 2.23이며, 전체변량의 8.6%를 설명해 주었다. 교육적 양육행위는 부모자녀 관계에서 평등과 상호존중을 기본으로 하며, 자녀에게 풍부한 환경을 제공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14]. 교육적인 양육행위는 분명하고 합리적인 지도와 자녀의 행동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설명해주고 자녀가 해야 하는 일에 대해 적극적인 참여 및 지지가 포함된다[8].

Rhee [6]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행위가 교육적일수록, 아동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뿐 아니라, 자제력을 키울 수 있으므로 아동의 사회적 발달에 긍정적인 것으로 발달에 미치므로 중요함을 알 수 있다. Lim과 Chung [16]의 연구에서도 자녀에 대한 관심, 가르침이 한국형 양육행위 척도로 확인되어 본 연구 결과를 뒷받침할 수 있다. 그러므로 관심과 가르침이 포함되어진 교육적인 양육행위에 대하여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하고 이를 통하여 구체적인 지침을 개발하고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교육적인 양육행위와 가정 분위기는 지지적인 관계를 조성하며 가정에서의 자녀와 원활한 의사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21]. 자녀에게 교육을 통한 부모의 신뢰감을 주며 이에 따라 자녀는 양육자를 통해 역할이 동일시되고 긍정적인 면을 배우게 되므로 주 양육자는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본다[7]. 최근 영유아기 부모의 양육행위 유형을 Q방법론으로 분석한 연구[21]에서도 제시된 네 유형 중에서 2개의 유형이 ‘관심-준수형’, ‘배려-모범형’으로 확인되어 제3요인인 ‘교육적 요인’은 국내 유아기 주 양육자의 양육행위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

네번째 ‘충동적’ 요인은 Eigen value가 1.45로 전체 변량에 대한 설명력이 5.6%였다. 자녀의 양육 시 충동적이란 부모가 자녀의 행동에 애정을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양육자 스스로 규칙이 없이 본인의 감정에 치우치며 본인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17]. 이 요인에 적재된 문항으로는 ‘화날 때는 아이를 때린다’, ‘아이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하도록 내버려 둔다’ 등의 4개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의 충동적 요인은 권위주의적 유형[18], 통제적인 양육유형[16], 강압적 유형[6]이라고 명명한 선행 연구 결과와 그 의미에서 차이를 보였다. 충동적인 양육행위는 양육자 감정대로 신체적인 처벌과 지시 등의 비합리적인 전략을 사용하는 부정적 양육행위로서 자기 의사 표현이 강하게 표현되기 시작하는 유아기의 주 양육자들이 다른 발달단계의 아동을 양육할 때와는 달리 이성적으로 통제되지 않는 충동적 행위가 양육에 수반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충동적으로 자녀를 대하며 부정적인 처벌과 욕설을 하는 양육행위는 아동의 거부적인 태도로 연결된다[27]. 이러한 결과를 통해, 주 양육자에게 양육행위를 통한 추후 아동 행동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인지시켜 주며 평소 긍정적인 양육행위가 나타날 수 있도록 부모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29].

본 연구 결과에서 확인된 양육행위의 4요인 중 긍정적, 부정적 요인이 각각 2개 요인으로 확인되어 기존의 결과와는 달리 최근 주 양육자의 양육행위는 서로 양면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었

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의 올바른 양육을 위해서는 확실적인 양육관련 교육보다는 주 양육자들이 어떤 양육행위의 경향을 우세하게 가지고 있으며 취약한 부분이 어떤 영역인지 확인하여 긍정적인 성향을 강화시키고, 부정적인 성향은 보완해갈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본다.

아동이 성장발달해가는 특성에 맞게 주 양육자를 위한 훈육 및 상호작용 방식 등에 관한 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하겠다. 또한 주 양육자가 아동 양육 시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상담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 양육자 스스로 부정적인 양육행위에 대해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상담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확보를 위한 검정 결과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개념적 기틀과 도구 문항선정을 위해 국내의 선행 연구 고찰 뿐 아니라, 본 도구 개발을 위한 세 편의 사전 연구[5,21,22]를 통해 최근 한국의 유아기 주 양육자의 양육행위 현상을 반영한 개념적 기틀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본 도구 또한 개념적 기틀에 부합한 요인인 긍정적, 부정적 양육행위의 4개 요인이 확인되었다.

타당도 검정에서, 내용타당도 검증은 전문가 그룹, 일선 어린이집 교사, 주 양육자를 대상으로 세 단계 걸쳐 수행함으로써 실제 현장에 적절한 대표성 있는 문항을 선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문항분석 단계에서는 문항과 전체문항과의 상관계수가 .30 이상이면서 .80 미만인 문항만을 선정하였으며,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에서는 요인분석의 기본 가정을 모두 만족하였고 본 도구의 4개 요인인 애정적, 방임적, 교육적, 충동적 요인은 이들 요인은 전체 변량의 55.7%를 설명하고 있었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확인된 도구의 요인구조에 대한 타당성 검정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형의 적합도가 확인되었고, 각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들의 표준화 회귀계수는 모두 .50 이상으로 채택기준을 만족하였다.

도구의 신뢰도 검정에서 Cronbach's α 는 .70이었으며, 또한 요인별 Cronbach's α 값도 .79 이상으로 비교적 높은 값으로 신뢰도가 검정되었다. 본 도구의 일반화를 위해 사전 조사 및 본 조사에서 대, 중, 소도시와 경제수준 상, 중, 하 계층을 고려한 표집을 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개발된 유아기 주 양육자의 양육행위 측정도구는 체계적인 도구개발 과정을 거쳐 타당도와 신뢰도가 확보된 도구라고 평가된다. 또한 반복 연구를 통해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결론

본 연구는 국내외 문헌고찰과 사전 연구, 대상자 면담을 통해 구축된 유아기 주 양육자 양육행위 측정을 위한 개념적 기틀을 기반으

로 신뢰도와 타당도 검정 후 최종 26개 문항의 유아기 주 양육자 양육행위 측정도구를 개발한 방법론적 연구이다. 본 도구는 '애정적', '방임적', '교육적', '충동적' 4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5점 Likert 척도로서 측정의 목적은 양육행위 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하위영역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하위영역의 양육행위 경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양육행위와 관련된 다른 측정도구에서 긍정적 양육행위 요소가 우세한 특성을 보이는 것과 달리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유아기 주 양육자의 양육행위의 하위차원은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이 각각 2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점은 자율성이 강하며, 제1의 반항기인 유아기의 독특한 양육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점이라고 생각된다. 주 양육자의 양육행위가 애정적, 교육적으로 지각될 때 아동의 성장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으며, 주 양육자의 양육행위가 방임적, 충동적으로 지각될 때 아동은 성장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주 양육자는 애정적, 교육적 양육행위로 아동에게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양육행위를 수행 할 필요가 있으며, 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해 간호사는 주 양육자의 양육행위의 특성과 경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도구를 사용하여 유아기 주 양육자의 양육행위의 경향을 파악함으로써 주 양육자의 취약한 양육행위를 긍정적 양육행위로 강화시킬 수 있는 근거자료가 확보될 수 있으며, 주 양육자의 요구에 맞는 바람직한 양육행위를 위한 간호중재 계획 및 수행이 가능할 수 있겠다.

REFERENCES

1. Park SS, Park YH. The relationship among rearing environment attachment and self-identity. *The Journal of Human Studies*. 2005;19:41-62.
2. Kang JH, Oh KJ. Gender differences in the effects of preschoolers' age, temperament and parenting for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The Korean Journal of Women Psychology*. 2011;16(1):1-21.
3. Kim HK, Yoo MS. The effects of parenting behaviors and children's playfulness on emotional intelligence.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010;31(5):115-130.
4. Lim ST, Khu SS. Comparing the effects of family structural and parenting environments on children's maladjusted emotional behaviors.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 2006;15(3):115-131.
5. Park SJ. Content analysis of child rearings of mothers in infant and child preschool.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2014;20(1):39-48. <http://dx.doi.org/10.4094/chnr.2014.20.1.39>
6. Rhee S. The study for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parenting behavior scale' parents with school-age children [dissertation].

- Seoul: Ewha Womans University; 2012.
7. Kim HS, Kang KA, Kim SJ, Kim HO, Moon SY, Park SN, et al. Child · adolescence health nursing. Seoul: Koonja; 2013.
 8. Choi MK.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parenting, children's self-esteem, and stres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011;32(2):105-121.
 9. Kim KS, Song YA. Human growth · development & health across the life span. Seoul: Shinkwang; 2013.
 10. Fuligni AJ. The academic achievement of adolescents from immigrant families: The roles of family background, attitudes, and behavior. *Child Development*. 1997;68(2):351-363.
 11. Kim MS, Moon HJ.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efficacy on parenting behaviors in mother with young children.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2005;43(8):25-35.
 12. Darling N, Steinberg L. Parenting style as context: An integrative model. *Psychological Bulletin*. 1993;113(3):487-496.
<http://dx.doi.org/10.1037/0033-2909.113.3.487>
 13. Kim S, Kim A.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perceived mother's parenting behavior scale: An application of the self-determination theory.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012;26(3):717-738.
 14. Park SY, Lee S. A preliminary study for the standardization of the 'Korean maternal behavior inventory'.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1990;28(1):141-156.
 15. Oh SS, Lee JS. Way of parenting and the child's percep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haracteristics and definitions. *Korea Institute of Behavioral Sciences Study Notes*. 1982;11(1):1-15.
 16. Lim JH, Chung OB.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of the Korean parenting inventory. *The Korean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2004;11(4):55-73.
 17. Jeong GY, Shin HC.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parents as social context questionnaire (PSCQ). *Korea Journal of Counseling*. 2011;12(4):1287-1305.
 18. Huh MY. A study for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n inventory for parenting behavior perceived by adolescents.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2004;12(2):170-189.
 19. Perris C, Jacobsson L, Lindström H, von Knorring L, Perris H. Development of a new inventory assessing memories of parental rearing behaviour. *Acta Psychiatrica Scandinavica*. 1980;61(4):265-274.
 20. DeVellis RF. Scale development: Theory and applications. 3rd ed.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Inc.; 2012.
 21. Park SJ, Kang KA, Kim SJ. Types of child rearing behavior of parents during early childhood: Q-methodological approach.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13;43(4):486-496.
<http://dx.doi.org/10.4040/jkan.2013.43.4.486>
 22. Park SJ, Kim SJ, Kang KA. Integrative review of nursing intervention studies on mother-infant interactions.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2014;20(2):75-86.
<http://dx.doi.org/10.4094/chnr.2014.20.2.75>
 23. Nunnally JC, Bernstein IH. Psychometric theory. 3rd ed. New York, NY: McGraw Hill; 1994.
 24. Han SS, Lee SC. SPSS nursing and health statistical analysis. Seoul: Hyunmoon; 2006.
 25. Cho SB. LISREL structural equation model. Seoul: Youngji Publishers; 2000.
 26. Minjung Publishing Co. Minjung's essence Korean-English dictionary. Paju: Author; 2013.
 27. Kim GS. New AMOS 16.0 analysi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oul: Hannarae Publishing Co.; 2007.
 28. Kaplan RM, Saccuzzo DP. Psychological testing: Principles, applications, and issues. 5th ed. Belmont, CA: Wadsworth/Thomson Learning; 2009.
 29. Park HJ.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dysfunctional parenting scale [dissertation]. Seoul: Korea University; 2010.